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일단 (제 1~2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 (JENESYS2024)’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차세대 교육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각종 시찰, 일본의 교육관계자 등과의 교류,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한국 교육관계자 합계 61 명

【방문지】 방일 (도쿄도 합계 61 명, (제 1 단) 홋카이도 34 명, (제 2 단) 야마나시현 27 명, 나가노현 27 명, 에히메현 27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5 월 23 일 (목)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6 월 11 일 (화)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6 월 12 일 (수) 【강의】 문부과학성 ‘일본의 초등중등교육에 대하여’

【기업방문·강의】 주식회사 베네세코포레이션 ‘일본의 통신교육업계’

【시찰】 이수현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6 월 13 일 (목) ~ 6 월 19 일 (수)

2 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 1 단은 홋카이도, 제 2 단은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아이치현을 방문

(1) 제 1 단 : 홋카이도

6 월 13 일 (목) 【학교방문·교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립 히라마초등학교, 홋카이도로 이동

6 월 14 일 (금) (A 그룹) 【학교방문·교류】 나나에초립 오오누마가쿠요학교

(B 그룹) 【시찰】 앓사부초 (인정) 어린이집 하제루

【강의】 어린이집 하제루에 대해

6 월 15 일 (토) 【교류】 홋카이도교육대학 하코다테캠퍼스 재학생과의 의견교환, 홈스테이 대면식

6 월 16 일 (일) 종일 홈스테이

6 월 17 일 (월) 홈스테이 해산식

(A 그룹) 【시찰】 앓사부초 (인정) 어린이집 하제루

【강의】 어린이집 하제루에 대해

(B 그룹) 【학교방문·교류】 나나에초립 오오누마가쿠요학교

6 월 18 일 (화) 【자치체방문】 홋카이도교육청, 【강의】 홋카이도청 ‘홋카이도의 매력에 대하여’

【강의】 홋카이도지방 ESD 활동지원센터

성과보고회 (방일성과 · 귀국 후의 활동계획발표)

6 월 19 일 (수) 신치토세국제공항에서 출국

(2) 제 2 단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아이치현

6 월 13 일 (목) 【학교방문 · 교류】 도쿄도립 미타카중등교육학교, 야마나시로 이동,

【시찰】 아사카와 노리타카 · 다쿠미형제자료관, 나가노로 이동

6 월 14 일 (금) 【학교방문 · 교류】 이이다시립 토오야마중학교

【방문 · 강의】 이이다시 교육위원회 ‘이이다시의 교육정책과 대처 등에 대하여’

6 월 15 일 (토) 【시찰 · 체험】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전승사례(이마다 인형의 집, 쇼게츠안)

6 월 16 일 (일) 종일 홈스테이

6 월 17 일 (월) 홈스테이 해산식, 아이치현으로 이동

【학교방문 · 강의】 아이치교육대학 ‘아이치교육대학의 ESD/SDGs 학습’

【교류】 아이치교육대학 학생과의 간담회

6 월 18 일 (화) 【강의】 ESD 컨소시엄아이치 ‘아이치현의 ESD 추진에 대하여’

【시찰】 토요타산업기술기념관, 【시찰】 나고야시 미나토방재센터

6 월 19 일 (수) 성과보고회 (방일성과 · 귀국 후의 활동계획 발표), 추부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4 년 6 월 12 일【강의】문부과학성 ‘일본의 초 등중등교육에 대하여’	2024 년 6 월 12 일【기업방문 · 강의】 주식회사 베네세코포레이션 ‘일본의 통신교육업계’
	
2024 년 6 월 13 일 【학교방문 · 교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립 히라마초등학교	2024 년 6 월 13 일 【시찰】 아사카와 노리타카 · 다쿠미형제자료관

	
2024년 6월 14일 【학교방문·교류】 이이다시립 토오야마중학교(모의수업)	2024년 6월 17일 【시찰】 앗사부초 (인정) 어린이집 하제루
	
2024년 6월 17일 【학교방문·교류】 아이치교육대학	2024년 6월 18일 【강의】 홋카이도지방 ESD 활동지원센터

3. 참가자의 감상 (발체)

◆ 한국 교원

학교방문이 둘도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도쿄, 나가노, 아이치에서 각각 현지의 교원, 학생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교육환경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한국 교원

도시와 지방의 학교방문을 통해 앞으로 각각의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교류에서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가족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 한국 교원

교육관련기업과 의무교육학교 방문, 어린이집 유학을 추진하는 어린이집 시찰, 일본의 교원과 교원을 지향하는 대학생과의 교류, 문부과학성의 강의청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일본측 감상(발췌)

◆ 주식회사 베네세코포레이션

일본의 교육시장규모, 교육과제, 당사 사업내용 등에 소개하였습니다.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 현장에서의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열의를 느낌과 동시에 당사 사업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교’라는 나루시마 컴퍼니장의 말처럼,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중요한 교육에 관계하시는 여러분과 교류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학교와 교외교육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교류의 의의가 깊어지리라고 느꼈습니다.

◆ 가와사키시립 히라마초등학교 이가라시 레이코 교장

방일단 여러분이 본교에 방문하시는 것을 저희는 대단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의수업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수업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교실순회를 했더니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즐겁게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교원들간의 그룹토론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활발한 이야기가 이루어져, 솔직히 놀랐습니다. 방문한 여러분이 가신 후에도 직원실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교육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서로 상대국의 좋은 부분을 존경하게 된 것이 최고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앞으로의 교육에 활용해 나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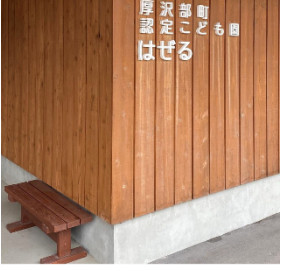
◆ 일반재단법인 홋카이도오오누마국제교류협회

방일단 여러분, 홋카이도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단원 여러분께서 시찰처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질문해 주시고, 호스트패밀리 여러분도 교류를 계속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 스태프로써 대단히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 홋카이도남부지역 최초의 초중일관 의무교육학교, 어린이집 유학을 탄생시킨 (인정) 어린이집의 시찰, 미래의 교원인 교육대학 재학생과의 의견교환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표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교류는 귀중한 기회이자,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앞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고, 양국의 교육 발전과 우호관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자료관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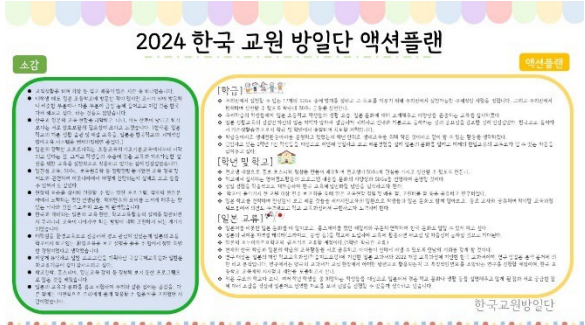
이번에 한국의 선생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사카와 형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사카와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신 것이 앞으로의 양호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발견과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사카와형제는 한일우호친선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사카와 형제의 존재와 삶을 많은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Ichigo...yonie... 한일 학술교류 2일째, 도쿄 오전엔 일본 문부과학성 과장보좌의 일본 교육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어 신기했다. 공통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큰 걱정거리인데..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 오찬 만찬회 이후 일본 최대의 교육업체 베네세 코퍼레이션에서 일본의 통상교육 현황에 대해 들었는데 사교육 업체지만 공교육과 연계하여 국가의 교육발전에 신경을 쓰고 있고, 0세부터 노령인구까지 전 연령의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신오쿠보역의 이수현씨 추모비 방문 의인 이수현씨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고향이 울산이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한일 관계의 가교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있는 멋진 분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되었다.	 2024. 6. 14 농민서 배우는 어린이집 하제루. 앗사부초에 위치한 어린이집인 하제루는 놀이과정 속에서 스스로 생각 하는 것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가 답을 찾는 과정을 다 학생들이 숙도에 맞추어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평소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격려한다는 점이 하제루 어린이집의 중점교육안에 실려있고 교육현장에서 실천이 쉽지는 않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일보다 하제루 어린이집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직접 과일, 채소를 가꾸고 스스로 키운 것들로 음식도 만들고 지역사회 행사에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성장에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이나 개인, 후원회, 모든 공간이 열린 공간이라는 점 등 어린이집 사정을 모두를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 또한 모든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설계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하제루는 기존의 지원을 합쳐 2~3주 동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린이집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앗사부초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앗사부초의 공무원이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은 일본인들에 깊은 애郷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2024년 6월 12일 (Instagram) 신오쿠보역에 있는 故 이수현 씨 추모비 방문. 의인 이수현 씨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고향이 울산이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한일관계의 가교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멋진 분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되었다.	2024년 6월 14일 (Instagram) 앗사부초에 있는 어린이집 하제루는 놀이과정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가 답을 찾는 과정을 각 학생의 숙도에 맞추어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앗사부초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앗사부초의 공무원이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은 일본인들의 깊은 애郷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프로그램중 내가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급식을 차려주고 우리를 대접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그 예의범절이 너무나 정성이어서 눈물이 났었다. 오봉에 손수건을 깔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에 담아 먹는데 그거 하나 하는게 왜 대견한지. 외국인생들 앞에 앉아 마치 노인 말벗 봉사활동 하듯이 영어도 안되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화하는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혼자서 척척 해내는 감동이었다. 영어 나 수학이 무슨 소용이나. 인간이 되어야지. 인간성 교육부터 하는 일본 교육이 솔직히 엄청 부러웠다. 어제 도쿄 중학교도 그렇고 영어는 못하지만 뭐여면가. 아이들의 순수함과 호기심, 또 배우려는 의지가 살아있는 모습을 얼마만에 본 지 모르겠다. 방과후에 학원을 안다니는게 얼마나 중요하진. 떠나는 버스까지 뛰어와서 배웅하는데 버스 안에서 생들이 눈물이 터졌다. 그야말로 힐링캠프였다. #JENESYS #JFKC 	 외 119명이 좋아합니다 교육부 국제교류원 교원 한일교류단 sns 출장 보고서 5월차 6월차 일본 가정집 홈스테이 5월차 오전에 300년 전통의 인형극을 관람하고 일본 전통의 다도체험을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은 전통문화의 계승을 진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시스템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 인형극도 지역사회의 서포터로 그 맥락을 300년이 나 이어가고 있는데 그 지원을 이다시 교육위원회에서 한다. 지역교육청이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 계승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도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뒤로 하고 오후부터 일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나가노현은 우리나라 강원도 이다시시는 강원도 춘천시나 강릉시 정도? 우리 이다시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 아나초로 들어갔다. 그곳은 캄시골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배경의 산골이었다. 너의 이름은 등장하는 스와호수와 산골 마을도 다 나가노현이 배경이다. 그런곳의 집에서 2박 3일을 보내는 그 홈스테이 생활은 교육과 무관하기에 출장 보고서에는 길이 다루지 않았다. 다만 그곳을 떠날때 방명록에 나는 이렇게 남겼다.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풍경과 경치, 냄새까지 모두 그리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아마 힘들겠지만 괜찮습니다. 저의 소중한 추억이란 곳에 이미 이곳은 정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때마다 꺼내어 회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호타루의 밤, 신수의 안개, 스와호수의 아침, 나가노는 일본의 낭만이었다. 나가노에서 생활은 내 인생의 낭만이었다.
2024년 6월 14일 (Facebook) 인간성 교육부터 하는 일본교육이 솔직히 엄청 부러웠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호기심, 또 배우려는 의지가 살아있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본 지 모르겠다. 버스까지 뛰어와서 배웅하는데 버스 안	2024년 6월 17일 (Instagram)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풍경과 경치, 냄새까지 모두 그리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더 와 보고 싶습니다.

에서 샘들이 눈물이 터졌다.	아마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의 소중한 추억이란 곳에 이미 이곳은 정말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홋카이도신문) “한국 선생님이 교류수업 나나에·오오누마가쿠요 학교 놀이와 행사 소개” 단원에 의한 동교에서의 모의수업, 앓사부초 (인정) 어린이집 ‘하제루’ 시찰과 홋카이도교육 대학 하코다테 캠퍼스의 학생과의 교류에 대해 소개.	2024년 6월 28일(하코다테신문) “오오누마가쿠요학교아동 한국문화를 접하다” 한국의 젊은 교원들이 JENESYS의 일환으로 방일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단원에 의한 동교에서의 모의수업과 홀스데이 등에 대해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성과발표】 - 일본의 강력한 소프트파워는 초등교육의 기초·기본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수준에 맞춘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대학원에서 환경교육을 전공해서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정말로	【성과발표】 - 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강연과 학교 방문, 기관 시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일본의 위생 교육, 생활 예절 교육, 지진대피 교육 등이 매우 인상 깊었고, 관련 교육을 국내 교육 현장에도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 일관교육, SDGs, 어린이집 유학 등 들은 적이 있는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해 일본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액션플랜】 ▪ 이번에 배운 일본문화를 아이들에게 알리고, 미래의 한일교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 소속학교에서의 전 교원 대상의 연수보고회를 통해 일본 교육현장에서 배운 것과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 이번에 방문한 오오누마가쿠요학교와 작문을 활용한 학급간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방일교원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맺으며, 교직원 활 전반 및 양국간의 교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귀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액션플랜】 ▪ SNS 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일프로그램을 홍보하겠습니다. ▪ 일본 교원방한단과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일본 자매학교와 온라인수업을 실시합니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